

[たぬきの後悔]

[너구리의 후회] - 일본 전래동화

* たぬき[狸] 너구리

* こうかい[後悔] 후회

たぬき一匹が 山の中に 暮らしていました。

너구리 한 마리가 산속에 살고 있었어요.

* くらす[暮(ら)す] 살다, 지내다

たぬきは家族も、友達も いないひとりぼっちです。

너구리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외톨이었지요.

* ひとりぼっち[一人ぼっち] 외톨이, 단 혼자, 고립됨.

普段は、ほらあなを 掘って暮らし、町に下りてきては、いたずらをする 것을
すきでした。

평소에는 굴을 파고 살면서, 마을에 내려와 장난치는것을 좋아했어요.

* ふだん[不斷・普段] 평상시, 평소

* ほらあな[洞穴] 동굴

* ほる[掘る] 구멍을 뚫다, 파다

* いたずら[悪戯] 짓궂은 장난

畑に入り、じゃがいもや さつまいもなど ほりかえしたりしていました。

밭에 들어가서 감자나 고구마등을 파헤치곤 했지요.

* はたけ[畑] 밭 - た[田] 논

* じゃがいも[じゃが芋] 감자

* さつまいも[甘藷] 고구마

* ほりかえす [掘(り)返す] 파내다

梅雨にはいり、たぬきは ほらあなの中で 何日か 閉じこもりました。

장마철이 되자, 너구리는 굴속에서 며칠동안 갇혀야만 했어요.

* つゆ[梅雨]=ばいう 장마

* とじこもる[閉じこもる] 두문불출하다, 갇히다.

そして、雨がやみ、たぬきは ほらあなから出て 小川に 行きました。

그리고, 비가 그치자 너구리는 굴에서 나와 개울가로 갔어요.

* やむ [止む] 그치다

* こがわ=おがわ[小川] 개천, 시내

小川には 雨が たくさんふったので 水かさが 増していました。

개울은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불어 있었지요.

* みずかさ[水かさ] 물의 양, 수량

小川の真ん中には 誰かが 網で 魚を つかまえていました。

그 개울 한가운데에서는 누군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 あみ [網] 그물

* まんなか[真ん中] 한가운데

* つかまえる[捕まえる] 붙잡다

近くに行ってみると 母ひとり子ひとりで 暮らすさとみという子供でした。

가까이 가서 보니,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토미라는 아이였어요.

さとみが 網を 持ち上げると、魚がいっぱい 入っていました。

사토미가 그물을 들어올리자,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 もちあげる[持(ち)上げる] 들어올리다

さとみは 喜びながら 魚を バケツの中に入れ、もう一度 水辺に 下りていきました。

사토미는 즐거워하며, [독위로 올라와] 물고기를 물통안에 넣어두고, 다시 개울로 내려갔어요.

* すいへん[水辺] 수변, 물가

たぬきは いたずらを したくなりました。

너구리는 또다시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バケツに 入っていた魚を 一匹ずつ 水の中に 戻しました。

물통에 있던 물고기를 한 마리씩 물속으로 던져버렸지요.

* もどす[戻す] 되돌리다

その時、さとみが 大きな聲で 叫びました。

그때, 사토미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 さけぶ[叫ぶ] 외치다, 소리지르다

“この泥棒たぬき！”

“이 도둑 너구리야!”

* どろぼう[泥棒] 도둑놈

たぬきは さとみを 怒らせ 山の中に逃げました。

너구리는 사토미에게 약올리며 산속으로 달아났어요.

* いからす[怒らす] 성나게 하다

* おこる[怒る] 화내다, 성내다

何日か過ぎ、たぬきは またいたずらをしたくなり、こっそり 町におりてきました。

며칠이 지나 너구리는 또 장난을 치고 싶어서 살금살금 마을로 내려왔어요.

* こっそり 몰래, 가만히

古いさとみの家の前を 通ったら、さとみのお母さんが 亡くなっていたのを 知りました。

낡은 사토미의 집 앞을 지나는데 사토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것을 알게 되었어요.

* なくなる[亡くなる] 죽다

‘さとみが かわいそうだな、私みたいに ひとりぼっちに なってしまった’

‘사토미가 불쌍하구나, 나처럼 외톨이가 되버렸어’

たぬきは さとみを たすけてあげよう と 思いました。

너구리는 사토미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そして、次の日から くりを ひろってきて、さとみの家の前に こっそりと 置いておきました。

그래서, 다음날부터 밤을 주워와 사토미의 집에 몰래두고 잤어요.

* くり[栗] 밤

* ひろう[拾う] 줍다, 골라내다

その次の日は 野いちごを とっておいておき、次の月は、山うさぎを 捕まえて置いておきました。

그 다음날에는 산딸기를 따다가 놓고 잤고, 또 다음달에는 산토끼를 잡아다 놓고 잤지요.

* 野(の)いちご 산딸기

* 山うさぎ 산토끼

そんなある日、さとみの家の中か友達と話しているのが 聞こえました。 .
그러던 어느날, 사토미 집안에서 친구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最近、私の家に 誰かが 食べ物を 置いていくの”

“요즘 우리집에 누군가가 먹을것을 놓고간단다.”

さとみの言葉に 友達が 言いました。

사토미의 말에 친구가 말했어요.

“たぶん 神様が 一人になったあなたを 助けてくれてるのよ”

“아마도 하느님이 혼자된 너를 도와주는걸꺼야”

たぬきは 食べ物を 置いていったことを よくやったと考えました。

너구리는 먹을것을 놓고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次の日も たぬきは 山で 採った實を、さとみの家の庭に 置き、ひっそりと 歸りました。

다음날에도 너구리는 산에서 주은 열매를 사토미의 집 마당에 놓고 살금살금 나가고 있었어요.

* とる[採る] 채집하다, 뽑다, 채용하다

* み[實] 열매

その時、台所からでたさとみが たぬきの後姿を発見しました。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사토미가 너구리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 だいどころ[台所] 부엌

* うしろすがた[後ろ姿] 뒷모습

* はっけん[發見] 발견

‘あっ！私の魚を 盗んだたぬきじゃない？ また悪いことするかもしれないから、わなを しかけないと‘

‘앗, 내 물고기를 훔쳐간 너구리놈 아니야?. 또 나쁜짓 할지 모르니 덫을 놓아야겠다‘

* ぬすむ[盜む] 훔치다, 속이다

* わな [罟] 덫, 올가미

次の日、結局 たぬきは さとみが仕掛けた罟に かかってしまいました。

다음날, 결국 너구리는 사토미가 놓아둔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 けっきょく[結局] 결국

* しかける[仕掛ける] 장치하다, 준비하다

たぬきは、一晩中 もがきましたが、出ることは できませんでした。

너구리는 밤새 몸부림을 쳤지만,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 ひとばん [一晩] 하룻밤, 밤새

* もがく[踴く] 발버둥 치다

罟にかかったたぬきを見つけ、さとみは びっくりしました。

덫에 걸린 너구리를 발견한 사토미는 깜짝 놀랐어요.

それは、たぬきの横に たぬきの毛が ついた實が あったからです。

바로, 너구리 옆에 너구리털이 묻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죠.

* よこ[横] 옆

* け[毛] 털

“それじゃあ、いままで 夜になると 食べ物を 持ってきてくれていたのは、たぬき あなたなの？”

“그러면 지금까지 밤마다 먹을거리를 가져다준것이 너구리 너란 말야?”

“實はお母さんが亡くなってから、あなたに いたずらをしたのを 後悔して 助けてあげたかった”

“사실은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에게 장난치게 후회되서 도와주고 싶었어”

たぬきは、さとみに 許しをもらいたく言いました。

너구리는 사토미에게 용서를 빌며 말했어요.

* ゆるし [許し] 용서, 허락

さとみは 笑いながら、たぬきに 言いました。

사토미는 미소를 지으며 너구리에게 말했어요.

“たぬき、お母さんは ずいぶん前から 体が わるくて 亡くなったの。あなたが 悪くおもうことはないわ”

“너구리야,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아프셔서 돌아가신거야. 네가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

その後、たぬきは いたづらを せず、やさしいたぬきになりました。

그뒤로 너구리는 장난치지 않고, 착한 너구리가 되었답니다.

* ~せず ~하지 않고